

	<b>인도(뉴델리) 통상사무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 승 창 소 장
		일 시	2023.07.

## CEPA Insight

- ‘디지털 인디아’ 전략으로 신성장 엔진장착, 변화 가속화
- 2023. 1. ~ 5. 인도 우선권증명서 발급건수 작년 동기대비 1,978% ↑

### < 2023년 6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8,637천불	-4.0%	3,307천불	-36.8-%	11,944천불
충남	218천불	35.5%	14천불	-89%	204천불

※ 출처 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## ■ ‘디지털 인디아’ 전략으로 신성장 엔진 장착, 변화 가속화

- 생체 인식 기반 전자주민등록 시스템 ‘아드하르’와 세계 최저수준의 데이터 비용 도입을 두 축으로 ‘디지털 인디아’ 전략은 인도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음.
-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국가이자 자본주의국가인 인도는 2006년까지 거대 잠재시장으로 불렸으나 사회주의 체제의 일사불란함을 토대로 변화의 속도가 빨랐던 중국과 비교됨
- 지하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세금이 걷히지 않고, 하루 4차례 이상 발생하는 정전으로 생산시설의 가동중단, 3륜차로 인한 공기질 악화 등 인도의 발전을 저해함
- 해결책으로 떠오른 정부주도의 ‘디지털 인디아’ 전략은 생체인식기반 전자주민등록 시스템 ‘아드하르’ 와 세계 최저수준의 데이터 비용도입으로 인도의 발전에 가속화시킴
- 디지털 인디아(Digital India)전략
  - 2014년 나렌드라 모디총리에 의해서 시행되었으며, 개선된 온라인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 연결을 늘리거나 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부 서비스를 시민들이 전자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
  - 주민등록 시스템이 없던 인도는 생체인식기반 전자주민등록 ‘아드하르’ 카드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회 복지 시스템의 기반으로 삼고 IT 산업 활성화 및 탈세를 막는 효과를 보게 됨. 게다가, 교육과 복지, 의료 인프라 개선의 혁신 수단으로 시스템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 인도 국민 90% 이상이 이 ‘아드하르’(힌디어로 ‘기초’를 의미)를 받음.

• 세계 최저수준의 데이터 비용

- 인도인은 저렴한 데이터비용으로 마음 놓고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하며 상거래를 활발히 이루어져 14억 인구인 인도를 거대 소비시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음
-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결제 거래건수가 많은 나라가 인도였으며, 실시간 거래건수는 480억 건으로 중국(180억 건)의 약 3배에 달함

■ 2023.1.~5. 인도에 우선권증명서 발급건수 작년 동기대비 1,978% ↑

- 우선권증명서는 해당국가에 특허출원을 할 때 한국에 출원한 시기부터 소급해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로 특허출원이 공유되는 IP5(한국,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)와 달리 자동으로 기술출원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해당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임
-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이 해당 국가에 생산 공장을 세우기 전에 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많음
- 특허청에 따르면, 올 1~5월 한국이 인도에 우선권증명서를 발급한 건수는 1,03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(50건)은 물론 한해 건수(96건)도 이미 넘어선 상태. 여기에 우선권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임
- 인도는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(15~64세)가 차지하는 비중이 67.5%(2021년 기준)이지만 월 실질임금은 중국(1,526달러)의 26%인 404달러에 불과함. 인구수는 세계 1위이며, 성장률도 중국에 비해 훨씬 높아 국내기업의 생산공장을 이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국가로 인식됨



■ 인도 국가전략과 시장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진출방안 모색 필요

- 인도의 밝은 성장전망과 유일한 중국 대체재로 인식되는 점이 인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
- `미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기업인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졌으며, 이는 인도의 밝은 성장전망과 유일한 중국 대체재로 인식되는 인도의 달라진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인도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
- 도내기업의 경우에도 완성품 수출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인도 기업과의 기술적 협력, 생산시설이전 등을 통하여 거대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